



제 53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선거 기호 2번 회기 선본 이소미(화화 2018·오른쪽) 정후보와 권정환(아동가족학 2018·왼쪽) 부후보 (사진=김창호 기자, 이현정 기자)

# 〈기호 2번 회기 선본〉 “학우들의 목소리로 다시 돌아갈 시간”

김창호 기자 k.c\_hoxx@khu.ac.kr  
이현정 기자 pr3417@khu.ac.kr

#경희의 2021년을 새롭게 열어갈 학생총투표. 우리 신문은 서울캠퍼스의 새로운 한 해를 책임질 총학생회(총학) 후보 〈기호 2번〉을 만나 그들이 가진 생각을 들어보았다.

## Q.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A. 한자로 돌아올 회, 기약할 기를 써서 “학우들의 목소리로 다시 돌아갈 시간”이라는 뜻이 바로 우리의 선본명이다. 단과대 학생회장을 역임하며 학우를 위해 일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학생자치는 학우의 이야기를 듣고 소통하는 것이라는 걸 누구보다 체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 총학은 그러한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학우의 목소리로 돌아가 그 목소리에 다시 집중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

## Q. 회기 선본을 유권자가 뽑아야 하는 이유와 타 선본과 비교했을 때 강점이 있다면?

A.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기존 학생자치 경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최근까지 코로나19에 대응했던 경험을 포함한다. 정후

보와 부후보 모두 전년도 학생회장을 역임했으며 정후보는 등록금채정위원회(등채위) 위원, 부후보는 코로나19 대책위원회와 학사 일정 TF팀에서 학생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처럼 두 후보 모두 학교 본부와 소통을 겪어온 경험이 많은 것이 우리 선본의 강점이 되리라 생각한다.

## Q. 핵심 공약을 꼽자면 무엇이 있을지?

A. 첫 번째는 ‘수강신청 제도 개편’ 공약이다. 수강신청 사이트에서 서버시간을 제공하고, 정정기간에는 잔여인원 알림을 제공한다. 수강신청 중에도 얼마든지 희망과목 담기 취소 및 수정이 가능하게 할 것이다. 기존 수강신청 제도의 불편함을 개선하는 방안이 무엇일지 고민했다.

두 번째는 ‘소통간담회 상시진행’ 공약이다. 소통간담회를 통해 각 단과대의 요구를 직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등채위는 참여 가능한 학생위원이 이미 정해져 있어 개별 안전에 대한 호소력 있는 전달이 힘들었다. 반면 소통간담회는 안전에 따라 해당 단과대 학생회장이 위원으로 참석해 충분히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세 번째는 ‘행복기숙사 입사조건 개

편’ 공약이다. 현재 행복기숙사 입사조건은 정보제공의 측면에서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 때문에 우리학교부터 입사 희망자 주소지의 시청, 구청까지의 직선거리를 1차적으로 따져서 점수를 세부화 할 계획이다. 직선거리 이외에도 고려할 점이 많기 때문에 이후에도 꾸준히 세부 기준을 정립할 예정이다.

네 번째는 ‘세부성적 공개 의무화’ 공약이다. 학생에게 세부성적 공개를 의무화 할 것이며, 성적 공시기간에 인포21과 e-campus를 활용한 소통창구를 마련할 것이다. 이는 교강사가 학생의 질문에 답변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외에도 국제캠퍼스 ANSWER 선본, 행복기숙사 ACE 선본과의 공동공약, 생활협동조합 관련공약 등이 있다.

## Q. 국제캠퍼스 선본과의 공동공약이 눈에 띈다.

A. 물리적으로 캠퍼스는 분리되어 있지만 경희대학교는 결국 하나다. 그런데 학사일정 같은 사안을 논의할 때 각자 따로 이야기하는 구조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다. 마침 [ANSWER] 선본에서 좋은 제의를 해주셨고, 힘을 합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함께하게 됐다.

## Q. 공약을 만들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A. ‘학생들의 편의’와 ‘투명성 제고’를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했다. 우선 학우가 무엇을 원하고, 어떤 부분에서 문제를 겪고 있는지를 고민했고, 최대한 학우의 권리를 보장하고 편의증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했다. 또 총학의 각종 공약과 사업들

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의 투명한 공개를 위해 필요한 공약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던 것 같다.

## Q. 공약 이행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A. 모든 공약을 짜면서 많은 사람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했다. 학교 본부와도 어느 정도 논의를 마쳤다. 현실점에서 이행하지 못할 공약은 없다고 생각한다.

## Q. 총학생회 후보로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대응책이 있다면?

A. 학우를 위한 일에 집중할 것이다. 세부성적 관련 문제, 비대면 강의의 열람 기간 확대 등이 그 방법의 예시다. 차근차근 상황에 발맞춰 나가며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갈지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 부분이 우리 선본의 공약에 잘 나타나있다고 생각한다.

## Q. 서울캠퍼스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일지?

A. 지금 이뤄지는 ‘선거’야말로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의 공정함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뜻이다. 때문에 남은 선거기간 동안에도 중선관위의 불공정함에 대해 외칠 것이고, 이들의 잘못을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물론 이 선거를 위해서 준비해온 사람들이 많다. 우리도, 상대 선본도, 중선관위도 그랬을 것이다. 그러나 억울하게 억압당하고 징계당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이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 이번 중선관위는 공정함이 없다. 판단은 학우 여러분께 맡기고자 한다.

## Q. 정후보의 자치회비 미납부와 관련한 논란이 일고 있다.

A. 자치회비 자체에 무지했다. 개인적인 이유로 대학을 두 번 다니게 되었는데, 전에 다니던 대학에는 자치회비란 단어가 없었다. 또 두 번째 학교생활인 만큼 그저 학교를 다니는 것 자체에 집중하다보니 등록금 이외에 자치회비가 존재한다는 것에 신경을 쓰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재정사무부국장을 역임한 것에 대해 해명하고 싶다. 처음에는 집행부원으로 학생회 활동을 시작했다. 학생회에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학생자치의 소중함을 느끼고 학생회 활동에 의욕이 생겼다. 이후 재정국에 부임했고, 임원진 수를 맞추는 과정에서 재정사무국장이 됐다. 이 때 처음 자치회비를 알게 됐다. 이때는 이미 2학기 자치회비 납부가 끝난 시점이었다. 따로 자치회비 납부가 가능한지 문의도 해 봤지만 불가능했다. 이후에는 꾸준히 자치회비를 납부했다.

## Q. 중선관위에 사과를 요구하며 1차 토론회를 거부했다.

A. 우선 1차 토론회를 기다리셨을 학우와 밤늦게까지 토론회를 준비했을 KHU:KEY 선본에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과격한 선택이었고, 다소 무례한 선택이었다는 점도 인정한다. 다만 공정한 선거의 진행을 위해 내린 결정이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퍼포먼스였다거나 정치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에 내린 극단적 결정이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나?”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럼에도 다소 과격하고 올바르지 못한, 무례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 Q. 회기 선본을 한단어로 표현하자면?

A. 기회. 이 모든 것을 기회삼아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회기가 될 것이다.

## Q. 유권자에게 드리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A. 많은 준비를 했고, 학교와 소통도 마쳤습니다. 좋은 공약을 위해 마음 맞는 사람들과 신중하게 공약도 냈습니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공약보다는 차분하고 현실적인, 학우에게 다가갈 수 있는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비록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한 데 대해서는 아쉬운 마음이지만, 끝까지 애정 어린 관심과 함께 회기를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